

LG이노텍, LED 신뢰성 공식인정

국내 최초로 체계적 검증 실시 ... 기술평가 전 분야에서 적합 판정

LG이노텍이 국내 최초로 체계적 검증을 통한 LED(Light Emmiting Doode) 조명의 시범조성사업을 완료했다.

LG이노텍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 상무시민공원, 광주광역시청 지하주차장 등에 LED조명 4400여개의 건축물 시범조성사업을 마쳤다.

LED조명 건축물 시범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에서 제품검증, 납품, 설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고 일관된 검증체계를 적용한 업계 첫 사례로 LED 조명 표준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와 한국광기술원이 실시한 기업평가와 제품 설계기준, 밝기, 색온도, 소비전력, 전자파, 발열 등 기술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설치장소에 대한 환경 분석을 실시해 주변 경관에 최적화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최대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체계적 검증절차를 통해 안정적이고 현실화된 LED조명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LED조명의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07>